

지역 소식통

고창농협 부안지점
고추세척기 시연회

고창농협 부안지점(지점장 박상덕)이 지난 14일 농협 고추세척장 창고시설에서 신규 고추세척기 설치에 따른 시연회를 열었다.

고창농협 부안지점(지점장 박상덕)이 지난 14일 농협 고추세척장 창고시설에서 신규 고추세척기 설치에 따른 시연회를 열었다.

고창농협 부안지점(지점장 박상덕)이 지난 14일 농협 고추세척장 창고시설에서 신규 고추세척기 설치에 따른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는 고창농협 부안지점 직원과 농협 자체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고추세척장 창고시설 및 고추세척기를 설치했다.

세척기는 고추 특성에 최적화된 브러쉬를 1.2.3차 사위세척이 실시되고 고압송풍팬과 하부 진동장치를 통하여 잔여 물기가 남지 않게 건조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번 세척기 설치로 1시간에 800kg을 세척 할 수 있게 돼 최대 60%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고동안 고추를 씻는데 힘드려고 시간도 많이 걸려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고추세척기 설치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관내 집단급식소
세균측정기 대여 호응

고창군이 집단급식소에 세균측정기(ATP)를 대여해 종사자와 관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자체 세균검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균측정기는 1분 이내에 신속하게 현장에서 표면오염세균 수를 수치로 보여주는 기계로 주로 위생업소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고창관내 급식소에서 검사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30여개소로 50% 이상에 이르렀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자체검사 통해 조리기구, 시설, 종사자 손 위생상태를 수치로 알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조리에 임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에게 손 씻기 전후의 세균수 감소를 수치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어서 올바른 손 씻기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서문로 사거리 또 '꽁'

차선 침범갓고 도로 폭 좁아 보행자·운전자 안전위협 "사고 빈번, 부안군은 '나몰라라' 특단대책 마련 여론

부안군 행안면 서문로 사거리에서 계속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만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또 부안군청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오토

바이와 부안제일고등학교 방향에서 부안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는 것.

부안군에서도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서문로 사거리 인근 주택을 매입·철거해 일정부의 시야를 확보했지만, 해당 구간은 좁은 차로로 인해 대형 차량들의 차선 침범이 잦고 도로 폭이



부안군 행안면 서문로 사거리에서 계속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좁아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도로 규모에 비해 차량 통행이 매년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 또한 늘고 있어 부안을 주요 중심도로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시각적인 시각장애가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확실한 사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부안 제1·2농공단지 업체들의 공장진출에 따른 화물차량과 직원용 차량이 급격히 증가와 향후 제3농공단지 조성 완료로 기업 유치시 차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고 발생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문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이고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교통안전 위협요소를 없애는 일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한다.

서문로 한 주민은 "서문로 교차로는 매년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많은 주민들과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숲을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탐방로가 새롭게 개통됐다.

내장산국립공원 '우드칩 황토길' 개통

임시주차장부터 내장사 왕조교까지 탐방로 1.2km 구간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숲을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탐방로가 새롭게 개통됐다.

정읍시는 내장산 임시주차장부터 내장사 왕조교까지 탐방로 1.2km 구간에 '우드칩 황토길'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비 3억 원(도비)을 지원받아 지난 5월 착공을 시작으로 최근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우드칩 황토길'은 시멘트를 섞지 않고 나무를 잘게 만든 우드칩과 황토와 경화제만을 혼합해 만든 자연친화적 길이다.

일반 황토 포장과는 다르게 탄성력과 흡수성이 좋아 걸기에 불편함이 없어 가볍게 걸으며 환상적인 단풍길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친환경 휴 포장과 목재 자원으로 재활용된 우드칩 포장 등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도심 속 소규모 생태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드칩 황토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을 바란다"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로 진입 구간(내장사 매표소~임시주차장, L=1.1km)도 추후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우드칩 황토길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64억 추석 전 지급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 64억을 추석 전 지급한다.

시는 농가당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정향누리 상품권' (카드, 모바일)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민 공익수당 지원신청을 받아 10,687명을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급대상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영농규모가 1천㎡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농가 및 불법 소각 등으로 행

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제외됐다.

지급대상자는 해당 거주 주소지의 농협 본점과 지점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참여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카드형 지역화폐 '정향누리 상품권 출시

정읍시가 지류(종이)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정향누리 상품권'을 출시한다.

기존 종이형 상품권의 조기 소진과 노인층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 불편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오는 21일부터 출시되는 카드형 '정향누리 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충전은 농·축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신한조합 등 19개 금융기관 46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

면 은행 방문 없이 기존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카드발급과 상품권을 충전할 수 있다. 카드 상품권은 기존 모바일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개인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가능하며, 종이형과 동일하게 연말까지 10% 특별 할인 혜택을 준다. 시는 카드 상품권 발행에 맞춰 64억 상당의 농민 공익수당을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코로나19 여파 어려워도 힘내세요"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 농촌지도사업주요사업장 현장행정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주요사업장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맞춰 참석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업장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피는 등 세심한 행보를 펼쳤다.

박현규 부군수는 현장행정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창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실시하고 있는 부가까지 향상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 사업장 2개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농업인들이 직접 피부로 접하고 있는 새기술 실증사업농장을 찾아 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해 불가사리 액비를 제조해 활

용하고 있는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 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업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박현규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산과 들, 바다를 두루 갖춘 우리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